



보도시점 2026. 9. 16.(수) 배포 2026. 9. 16.(수) 09:00

한국보건복지인재원 지역사회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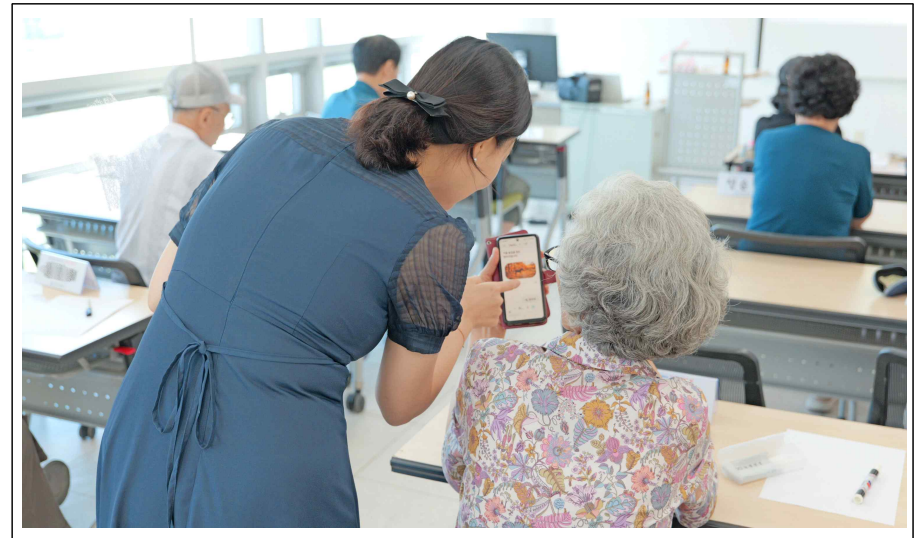
- 65세 이상 지역주민 25명 대상 실생활 중심 생성형 인공지능(AI) 교육 운영

- 한국보건복지인재원(원장 은민수, 이하 인재원)은 지난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오송종합사회복지관에서 65세 이상 지역주민 25명을 대상으로 총 3회에 걸쳐 생성형 인공지능(AI) 활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.
- 이번 교육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고, 생성형 인공지능(AI)을 일상생활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. 단순한 기술 소개를 넘어 어르신들이 자신의 생활과 연결해 인공지능(AI)을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실습 중심으로 운영한 것이 특징이다.



▲사진 인재원에서 오송종합사회복지관 이용 어르신 대상 AI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 한국보건복지인재원

- 교육은 글·음성 질문, 사진 기반 정보 확인, 생활정보 탐색 등 생성형 인공지능(AI)의 실생활 활용 기능을 중심으로 진행됐다. 이어 음악·이미지·이모티콘·영상 제작 실습을 통해 참여자들이 인공지능(AI) 활용 범위를 정보 탐색에서 콘텐츠 제작까지 자연스럽게 확장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
-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은민수 원장은 “디지털 기술의 빠른 변화 속에서 고령층을 포함한 지역주민 누구나 새로운 기술을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”며 “앞으로도 인재원이 보유한 교육 전문성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, 세대와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맞춘 실질적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



▲사진 인재원에서 오송종합사회복지관 이용 어르신 대상 AI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 한국보건복지인재원

담당 부서	대외홍보팀	책임자	팀 장 신 현 길 (043-710-9152)
		담당자	주 임 전 웅 찬 (043-710-9336)